

호남고속철 광주차량기지 변경 갈등

광주시, 자치구·주민 반대 불구 위치변경 동의 철도시설공단 "광주시가 먼저 요청"…논란 예상

광주시가 관할 자치구와 토지 소유자 등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의 위치 변경에 일방적으로 동의해 반발이 일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당초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를 광산구 유계동(동곡 송대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건설키로 기본계획을 세웠으나, 광주시의 동의를 거쳐 광산구 하남동으로 옮기기로 잠정 확정했다.

국토부는 기술조사 결과 기존 유계동 차량기지는 비행장 인접에 따른 공군의 반대와 차량기지 입지조건 미

흡 등 사업 일정 차질이 예상돼 호남선 하남역 주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일과 5일 관련 실·과의 검토를 거쳐 "호남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의 요구와 일차리 확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및 동시 완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차량기지 변경 등이 포함된 국토부 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변경안은 광주시가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5월 하남역 부근 곡선 구간(실선 구간)과 호남고속철도 신규 구간(점선 구간)에 따른 개발 용역(약 23만5천㎡)가 발생하자 활용방안으로 차량기지 이전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7년 5월 광주시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노선안 의견에서 광주차량기지 위치 재검토와 유류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먼저 요구했다"며 "광주시의 의견을 토대로 공군과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할 자치구인 광산구청은 물론 해당 주민들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달 20일 도시개발팀과 건설팀, 교통팀 등 6개 부서와 검토 협의를 거쳐 광주의 개발 축이 광

산구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남역 부근으로 차량기지가 이전되는 것은 광산 장기발전엔 크게 저해된다는 의견을 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전달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하남기지장 설비 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도 6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투쟁위는 앞으로 국토부, 시청과 시의회, 구청, 구의회 등에 추가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광산구의회도 이같은 민원상황을 의장단 회의에 상정해 입지 선정 재검토 촉구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투쟁위 차경섭 위원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하남2지구와 철도기지는 불과 150m 거리이고 보상지가 훨씬 높은 지역으로 갑자기 변경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하남동 차량기지 추진을 당장 중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 위치 변경 등을 조만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3일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에서 페덱스 화물기가 착륙실패로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日 나리타공항 첫 사망사고

중 화물기 착륙중 추락 조종사 등 2명 숨져

일본의 나리타공항 당국이 23일 오전 화물기 착륙 실패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관문으로 지난 1978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나리타공항에서는 이날 오전 6시 50분경 중국 광저우발 나리타행 페덱스 화물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강풍으로 인해 제대로 착륙하지 못하고 활주로에 충돌, 화염에 휩싸이는

바람에 미국인 기장(54)과 부조종사(49)가 숨졌다. 기체는 불길에 휩싸인 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약 2시간만에 진화됐다.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이 전한 사공 당시 화면에 따르면 사고기인 페덱스 80편 MD11는 착륙을 위해 A활주로에 진입, 일단 뒷바퀴까지 닿았으나 두차례 튕겨져 올랐다가 옆으로 뒤집어지면서 불길에 치솟았다.

사고 당시 나리타공항 부근에서는 최대 초당 순간 풍속 20m의 강풍이

불면서 이로 인해 기체가 중심을 잃은 것으로 당국에서는 보고 있다. 나리타공항지방기상대는 전날 저녁부터 공항 주변에 바람의 방향과 풍속이 급변하는 '윈도'로 불리는 정보를 발령, 주의를 촉구했었다.

일본 국내항공사 관계자들은 "풍향이 급변하면서 기체가 활주로에 경착륙하는 바람에 바퀴가 손상된 것이 원인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고 화물기에 타고 있던 기장과 부조종사는 진압에 나선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美, 여기자 억류 北 대담 기다리는 중”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2명의 기자 문제를 해결을 위해 북측 대표와 접촉했으며, 대담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미국 관리가 말했다고 미국 CBS방송이 22일(현지시간) AP통신을 인용

해 전했다.

인명을 요구한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접촉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미국이 북측에 제안한 것

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있다면 무엇을 제안했는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21일 조속한 기자 석방을 위해 고위급 대화를 할 의의가 있다는 뜻을 미국이 북한에 전달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 보도에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北 로켓발사 내달 4~5일 유력”

정보당국 “주말께 발사대 장착 연료 주입”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을 다음달 4~5일 발사할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한 정보 소식통은 23일 “북한이 다음달 4~5일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유력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다음 달 4~8일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께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해 연료 주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당국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첫 회

의가 9일 예정돼 있다는 점을 이같은 분석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다음달 6~8일을 택일했다가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로 발사일이 연기되면 첫 회의에서 ‘인공위성 발사’를 선포하는 ‘정치적 이벤트’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일본의 지지통신도 앞서 지난 20일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기상 악화나 마지막 순간 고

장만 없다면 북한이 다음달 4일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달 4~5일 로켓을 발사하려면 최소한 이번 주 내에 로켓이 발사대에 장착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06년 사용됐던 대포동 2호 미사일 추진체의 제원과 제조 기술이 기본적으로 이번엔 발사될 은하-2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2006년에도 발사하기 3~4일 전에 연료 주입 작업을 끝냈다는 점에서 2006년의 마지막 작업 일정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 주장이다.

/*연합뉴스

www.pms.co.kr www.kimyong.com.co.kr

PMS·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편 (062)227-8088

PMS 와 치의학 전문대학원

특수진료 전문대학원

2010학년도 편입대비

- 1. 10월 15일~18일 1차 시험
- 2. 11월 15일~18일 2차 시험
- 3. 12월 15일~18일 3차 시험
- 4. 1월 15일~18일 4차 시험

대학원입학 12월 1일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2박 3일 89,000원

1박 2일 59,000원 2박 3일 89,000원 3박 4일 119,000원

문의: 064-744-1109 www.jeju.com

제주원광신협

사업자 2,000만원까지 대출

신원 비과세 혜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제주원광신협